

BP · Shell, 중국 주유시장 진출

정유시설 신증설에 합작투자까지 ... 주유소 1000개 운영계획

영국기업들이 잇따라 중국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영국 방문 마지막 날인 5월11일 패트리샤 휴잇 통상 장관과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영국 BP, Shell, Kingfisher, 중국 B&Q 등이 참여한 계약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영국 정부는 합의가 주로 중국 내 휘발유 소매를 담당할 주유소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BP는 중국에 정유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공장을 확장하며, 중국 내 합작기업인 BP Sinopec 浙江, BP PetroChina 등과 함께 저장성(浙江省)과 광둥성(廣東省)에 주유소 500개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10억달러의 투자계약을 맺었다.

Shell은 Sinopec(중국석유화학집단지공사)과 합작기업을 설립해 앞으로 3년 동안 주유소 500개를 설립하는 계약을 하고 중국 정부의 사업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B&Q, 카스토라마 등의 소매 체인을 갖고 있는 가정용품 생산기업 Kingfisher는 중국 소비자가전 제조기업인 미데아 그룹과 계약을 맺고 앞으로 4-5년 간 중국 Kingfisher 대리점에 에어컨과 환풍기 등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7500만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화학저널 2004/05/13>